

라오스에서 봉사정신의 영역을 확장하다

- 이름 : 김동현
- 근무기구 및 부서 : 국제이주기구(IOM) 라오스 사무소 노동이동 및 사회적 포용 부서
- 직위/직급 : 초급 프로젝트 지원관(Junior Project Associate)
- 지원경로 : KOICA-UNV 대학생 봉사단
- 근무기간 : 2022.09. - 2023.09.

일사천리로 진행된 원서지원부터 최종합격까지

나는 해외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막연한 열정과 희망을 품은 채 곧이어 대학원 진학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최소 초급전문가 수준의 직급으로 입사하려면 사실상 석사학위가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도 함께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학원 졸업 예정 해인 2022년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그해 5월, 한 이메일을 받았다. 내가 불과 한 달 전에 한국 국제협력단(KOICA) 후원 유엔봉사단(UNV) Junior Project Associate(초급 프로젝트 지원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국제이주기구(IOM) 라오스 사무소에서 면접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면접은 내가 이메일을 받은 바로 그다음 주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면접관은 총 3명으로, 남성 1명, 여성 2명이었는데, 이 중 내 상사가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한테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그중에는 면접 준비 시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질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상사 부재 시 어떻게 소통 및 업무 처리를 할 것인가라든지, 또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적 경험을 설명하라든지, 또 해당 직책이 유엔봉사단 소속인 만큼 내가 맡을 직책이 자원봉사주의라는 대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견해도 물었

다. 이렇게 면접은 무려 한 시간이나 소요됐는데,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경력 수준에 견주어 봤을 때 면접의 난이도나 강도가 꽤 높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듯 나는 유엔이라는 기구에 몸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지원자들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 가운데 소수의 준비된 인재들만 비로소 이곳에서 일할 영예스러운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겸허히 결과를 기다렸다. 다행히 면접이 끝나고 불과 3일 후에 나한테 최종 합격 통지 이메일이 왔다. 9월부터 라오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훈련은 없다. 바로 실전에 투입되다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나는 곧바로 라오스로 갈 준비를 했다. 불과 열흘 남짓한 휴식을 가진 후 나는 드디어 9월 동남아 내륙국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으로 향하는 편도 항공편에 몸을 실었다. 과거에도 같은 동남아인 태국 방콕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라오스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비엔티안에 첫발을 내디디자마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과 후텁지근한 공기, 그리고 온갖 매연을 내뿜으면서 무질서로 지저분한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과 오토바이 행렬을 보면서 이내 나의 성급한 판단을 반성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색적인 이러한 풍경 또한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연속일 뿐이다. 내 관점을 바꿔서 현지 생활에 최대한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 자신한테도 이롭고 유엔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자원봉사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내 직책의 취지에도 부합하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라오스에서 마주치게 될 모든 난관을 성숙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로 하고 IOM으로 첫 출근을 했다.

나는 IOM 라오스 사무소 Labour Mobility and Social Inclusion(노동이동 및 사회적 포용)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주로 노동이주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부서인데, 비엔티안 상주직원은 나까지 포함한 5명, 그리고 라오스 남부지방 2곳에 상주하는 직원 각각 1명씩, 총 7명으로, 이는 30여 명 남짓한 인원이 근무하는 IOM 라오스의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다. 나는 첫 출근일부터 처

음 보는 동료들이 모인 IOM 라오스 대표 집무실로 호출되어서 제대로 된 자기 소개를 할 겨를도 없이 사업계획서 전 단계인 컨셉노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IOM이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개요를 작성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라오스 주재 일본대사관이 프로젝트 자금을 후원하는 도너로 추진될 계획인데, 이렇듯 IOM은 유엔 내 대표적인 프로젝트 기반 기구로 직원 대다수가 프로젝트 입안부터 시작해서 실행과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잠재적인 도너 단체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애쓴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프로젝트 집행비뿐만 아니라 직원 인건비로도 쓰이므로 꾸준한 사업발굴은 사실상 IOM이라는 기구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출근날부터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면서 국제기구 현장에서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이 느낄 책임감과 압박감, 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서의 성취감과 안도감까지 여러 감정이 쉴 새 없이 교차할 듯했다. 나만 하더라도 첫 날부터 업무 및 직책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도 건너뛰어 채 즉시 성과를 내서 나의 직무 적합성과 능력을 동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많은 것을 좌우한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영어 작문 실력이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에세이를 쓰면서 갈고닦은 영어 글쓰기 실력을 바탕으로 유엔에서도 이를 유용하게 활용했다. 특히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직무에서 글쓰기 실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내 예전 유엔 상사가 미흡한 작문 실력 때문에 유엔에서 진급을 못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까지 했을까? 근무 첫날부터 자료 검색을 포함한 컨셉노트 초안 작성부터 시작해서 라오스 국내외 이민 현안을 다루는 보고서, 향후 수년 동안 IOM이 라오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담은 결정체인 수십 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 몇 시간씩 이어지는 각종 회의 후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엮어낸 회의록까지, 업무상 글쓰기의 범위는 실로 넓다. 내 이전 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리서치와 글쓰기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파악한 내 상사는 주로 이와 직결되

는 업무를 나한테 맡겼다. 나로서는 내 특기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내 부서와 기관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업무를 즐김과 동시에 내 실력을 한 층 더 쌓을 좋은 기회였다.

6개월, 그리고 또다시 6개월

KOICA가 지원하는 유엔봉사단으로서의 계약기간은 6개월이 최대치였다. 따라서 나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초 6개월 근무를 마치고 이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최초 계약이 끝나갈 무렵인 2월경 내 상사랑 면담을 통해 나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IOM 잔류 희망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다. 비록 KOICA가 후원하는 유엔봉사단 계약은 6개월 단기직으로 끝나지만, 나는 이후에도 IOM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내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성과와 근무 태도를 토대로 내 상사가 IOM 라오스 대표에게 나의 계약 연장을 건의했고 이를 대표가 수락해서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IOM에서 계속 유엔봉사단 신분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이제부터는 내 직책을 후원하는 주체가 IOM으로 바뀐 게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계약이 연장된 이후로부터 나는 IOM 라오스 대표와 더 긴밀하게 일하게 되었다. IOM 라오스 사무소를 총괄하는 대표인 만큼 라오스에 있는 기타 유엔 기관과 라오스 정부 부처 등에 포진해있는 고위급 인사들과 자주 공식 및 비공식 회담에 참석했는데, 나도 이따금 그를 수행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각 유엔 회원국 내의 최고선임 유엔 직원으로서 해당국 소재 유엔 모든 기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책인 유엔 레지던트 코디네이터(UN Resident Coordinator)와의 면담에 배석한 경험은 나로서는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라오스의 여름은 변덕스럽다. 해가 바뀌면서 점차 더워지던 날씨는 4월로 접어들면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절정에 치달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스콜성 폭우가 퍼붓고, 또 심심하면 도시 전체에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씩이나 정전이 일어나곤 했다. 살면서 이만큼 정전을 많이 겪은 것도 라오스가 처음일 테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부심을 품고 자기가 맡은 바를 열심히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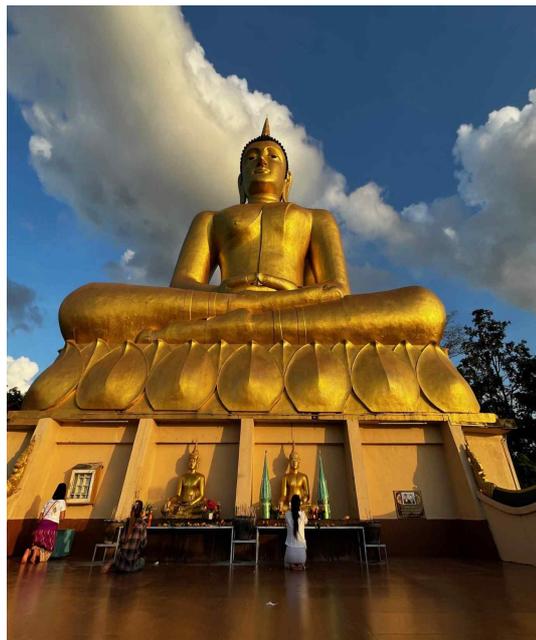
하는 유엔의 여러 현지 및 국제직원들 덕분에 인구 750만 남짓한 이 내륙국가가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굳세게 전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라오스인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 봉사 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데 지난 1년 동안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뿌듯함을 느낀다.



라오스 남부지방 출장에서



라오스 전통 축제인 피마이 행사 기념



라오스 남부에
있는 거대 불상